라합의 인생치유 / **Rahab's Life Healing** 여호수하 **Joshua 2:15-21**

말씀제목: 언약잡은 자는 치유된다.
말씀구절: 여호수아14:6-15

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들어가는 말씀
모든 치유받는 밤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함께 치유되고 언약으로 잡기를 바란다.
언약잡은 자는 치유된다.
오늘 갈렙이야기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이번주 돌아오지 않는 말씀인데 반드시 성취된다 현장을 정복한다는 뜻이다.

서론
1.기도자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언약을 잡는 기도가 중요하다
1)잡을 언약은 그리스도이다. 모든문제 해결자이고 저주에서 해방이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한다.

2)그안에 또하나의 약속이 하늘군대이다.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 단어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안이다.
3)또하나 잡을 언약은 기도는 응답된다는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따라가면 되는것이다.

2.이렇게 해서 우리가 24에 도달을 해야 한다. - 누구에게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3.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에 답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에 대한 가장 기초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다.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다 이방인이다.

본론
1.언약 - 갈렙
1)9절에 맹세-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그날에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날에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었노라
10절에는 이 45년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잖은가라고 한다. 이부분에서도 갈렙이 아주 훌륭한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고생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것이다. 그런데 갈렙은 그게 아니다. 말씀그대로 되었다고 확인한것이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말씀이 가슴에 들어온 사람은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항상 그 말씀을 확인한다.
3)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정복할것이라고 했다. -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한 말씀이 딱 언약으로 들어오고 확신한것이고 45년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것을 확인한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진것이다. 우리도 이렇게된다. 그렇다. 한번씩 고난에 들어갈때 딱 생각을 해보시라. 지나간 내 인생을 생각을 해보시라. 군데군데 일어났던 응답들을 생각을 해보시라. 그 눈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고난을 분석을 해보시라. 분석하자마자 정복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나의 평생에 응답이다.
4)15절에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었다. 물론 사사기 에 기록된 대로 사실은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은데, 그냥 넘어간것같다. 그런데 이 아낙산지를 정복하고 난뒤에 전쟁이 끝난것이다. 갈렙이 결국 가나안땅 전쟁을 결론 낸 사람이다. 참 놀랍다. 가만히 보면 이사람은

2.본래 언약의 사람이었다.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온다. 고백을 한것이 8절에 나온다.
1)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녹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놀랍다 그렇다. 개인치유뿐 아니라 인생치유되었다 역전이다. 하나님의 시대적ㅇ니 전쟁 가나안땅 전쟁을끝을 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것 하나 있어야 한다 소망! 언약 하나 있어야 한다. 내 혼자 생각에 남미 끝까지 단어가 없다면 무슨 힘으로 살것인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어떤때는 힘들다 나도 그렇다 마음도 상황도 힘들수도 있다. 그런데 남미 끝까지 생각들어오면 뒤집어 져버린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다. 이런 현장이 있을때마다 뒤에 따라오는 안타까운것이 있다. 왜 미국에는 문이 안열릴까? 거의 항상 따라온다. 다시 한번 기도한다. 하나님 미국에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언약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는 영적존재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다. 이것 없으면 소망 없고 절대 정복없다. 오늘 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그게 최고의 치유이다. 인생 모든 치유가 거기에 들어있다. 갈렙 보면 안다. 말씀이 딱 들어왔다. 45년 지난후에 확인을

하고확신이 들어온것이다. 그 장대한 민족을 깨버리고 전쟁을 끝냈다. 민족의 영웅이된것이다. 가나안땅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나라의 전쟁을 종결시킨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2)7-8절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8절에는 충성이라는 단어이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이 속에 어떠하냐 그말이다. 네 속 인간이 어떠하냐 이말이다. 하나님앞에서 그게 앞에 1번내용들을 만들어 낸것이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 내노력으로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앞에 성실하고 충성된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 내가 충성된자가 못되게 하는 뱀의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충성된 자가 된다. 개인적, 영적으로 속에서 부터 변화되고 있다는것을 느끼는가? 그냥 멍멍한가? 그리스도 진짜 누리시라 그러면 어느날 부터 증인으로 되어 가만히 있어도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할수 있게 된다.
3)에서 족속 이방인이다. 우리 성경에서 이방인인데 뛰어난 사람 몇명이 있다.
4)룻, 아합,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처럼 이방인었는데 아주 충성된 본래 언약을 가진 사람처럼되었다. 신약에 가면 유명한 여자 브리스길라 로마 사람이다. 우리도 다 이방인이다.

3.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마지막으로 한것이 도전이다. 아주 훌륭한 도전을 한것이다.
1)15절 헤브롯에 옛이름은 아르바라 큰 사람들이다. 아낙사람 큰사람 그때 당시 몸이 큰 사람들은 대단한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 몸이 작은게 유리하다 총가지고 싸우기때문에, 그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손가락으로 싸운데 사무실에서 손가락이 빠른사람이 이긴다. 진짜 세계전쟁이 게임전쟁이다. 그것과 같다. 다다다 하는 사람이 이긴다. 여하튼 어떻게 도전할수 있는가 필요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번주 말씀으로 표현한것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필요없고! 말씀! 끝! 갈렙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가나안전쟁을 종식, 거기 써놓았다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2)12절 크고 견고한성이라고, 사람도 최고로 큰 자들이다. 이런일 당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때는 전부 은혜가 된다 나도 할수 있을것 같고. 현실에 딱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거기 들어갔어도 지금처럼 똑같이 될 수 있는 답이 있다. 그게 말씀이다. 이것이 딱 들어오면 속에서 두려움이 안생긴다. 말씀중심으로 살기를 바란다.
3)언약으로 끝내시라. 다른게 아니고 언약 하나로 끝내라. 모세, 하나님이 아니고 지도자이다. 지도자가 한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것이다. 갈렙 훌륭하다? 왜?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였다. 그러면 분명히 모세의 말인데 갈렙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것이다. 옆에서 다른 사람도 듣고 있을것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4)모든 전쟁을 정리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결론
1.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도자가 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증거가 뭔가? 45년동안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날 그때 싹 들어온것이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렇다. 내가 목사라서 그런게 아니다. 나도 말씀받고 사는 사람이다. 강단과 훈련 메시지를 예사로 들어서는 진도 안나간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진짜 들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더 빨리 진도 나간다. 이런 축복이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치유있다. 여기에 정복이 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문제 끝내는것 종결된다. 그게 소망이 아닌가? 뭐가 소망인가? 남미 끝까지 가야 한다 중요한 제자 찾아야 한다. 남미를 두고 내 마음에 작년 올해 사이에 237-5000종족이다. 이번에도 가서 4곳에 갔지만 내 마음에 제자들이 많이 준비되고 일어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지금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목사, 리카라과에 있는 목사들과 앞으로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고서를 보냈다. 여기는 목사님 몇명 저쪽에는 성도들과 몇명정도 모일것이라고 이야기한다. 3월달에 노엘목사님, 만나니 자기가

코스타리카를 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들은 목사님 데이빗 목사가 비행기 표를 사주었다고 하더라.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노엘목사님이 코스타리카에 만나러 가는 목사님이 세들어 있는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목사님의 장인어른 집이라고한다. 그래서 거기에 만나러 가는 목사님과 건물주와 잘 아는데 연결이 되서 비행기표를 사주겠다고 한것이다. 주니가 목사님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것이다. 그리고 치아파스 멕시코에 셀리티노 라는 목사가 있다 오래전에 팬데믹 직전에 콰테말라에서 처음 집회 한곳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목사이전 장로로 참석을 하였다. 교회에서 목사도 없고 해서 목사를 하라고 해서 세워졌다. 내 마음에 늘 생각하는게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가서 안수를 해주어야 한다는 마음만 있고 못하고 있다. 잘한다 조용하다 한번 월요일에 와서 간증하라고 해서 시켰는데 두번이나 했다. 자기 교회 장로 8명정도인데 전부 지교회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산간지방이다 적어도 해발 800미터 이상에서 살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마리오전도사에게 들어보니 성경공부 두주간 못오는 이유는 전도문이 자꾸 열려서 그런다고하더라. 또 칠레에서 그 목사님 데이빗 쿠민이다. 내 보고 오던지 누구 한사람 보내달라고 하더라. 누구를 보내주면 더 좋겠다고 한다 1주일이나 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순회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렇게 자꾸 문이 열린다. 7월에는 베네주엘라에 갈런지 모른다. 최경희장로님 남편 최진호집사님 통해서 연결된 분인데 한번 만났다. 이분은 베내주엘로 상황이 안좋아서 미국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아파트도 있고 한다. 아파트는 있는데 8층인데 물이 올라온다 능히 상상이 된다 그 동네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간수도로에 차보다도 마차가 더 많다. 가나 안가나 뻔하다 아주 힘들것이다 이번에도 리카라가에서 호텔이다 바깥은 좋다 나무가 많아서 좋은데 샤워 물이 안나온다 얘기 했다 물이 안나온다고 했는데 틀었다고 한다 뜨거운물 차가원물을 다, 가늘게 틀어놓아도 안나오더라. 에스텔리는 지역이 높다 다른데 마나바 수도에는 낮다 이곳은 높아서 춥다. 밤에는 밖에 나가면 긴팔입고 있어야 할정도이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물이 더운물이긴하는데 방울방울 나오더라. 그래도 비누칠해서 다 씻는다 베네주엘라 목사님있는곳은 이곳보더 다 할것이다. 우물을 파났다고 모타를 붙여서 물을 퍼낸다고 한다. 모타는 얼마나 하나 그런게 있겠는가? 우리처럼 우왁해서 물을 푸겠는가? 8층에서 물을 필요한데 화장실은 어덯게 하나? 어디서 씻을것인가? 그런데이다. 그래도 참 사모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주 지역을 사랑하더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 마음에 그래 참, 선교사는 선교사이다. 보통 사람들이 볼때는 돌았나라고 생각할텐데, 지도자가 한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렇다. 강단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

2.이렇게 되면 자세가 중요하다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되면 출발이 안되는것이다. 이 언약과 하나님의소원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요하다 옛날에는 언약을 몰라서 종교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성실이 없어서 내 안에 들어온 언약이 워킹을 안한다. 그리고 충성되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앞에 안그런가 아니 뺑글 돌아다니면 무슨 충성인가? 옛날에는 언약을 모르니 종교가 되어버린다. 이제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언약이 역할을 한다

3.오늘도 깊은 은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진짜로 치유되는것이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시한번 언약으로 잡아라. 기도한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정말로 하고 정말로 하는 진심의 기도, 없는 사람은없다 다 있다 이게 지속이 되어져야 한다. 지속이 많이 안되서 치유효과가 크게 안나타나고 빤짝 효과이다. 그런데 빤짝을 지속하면 응답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주시기를 바란다. 돌아오지 않는 말씀이 다시한번 언약이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약을 잡은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보게 하옵시며 가진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인생 모두가 치유되고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치유되고 경제가 전도 선교와 교회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